

“故 장영춘 목사 미주 한인교회 주춧돌 놓았다”

故 장영춘 목사 천국환송예배 온라인 진행, 전 세계에서 추모 메시지 이어져

미국 동부지역 이민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미주를 넘어 세계 선교에도 헌신했던 고인이었던 만큼 이날 천국환송예배에서는 퀸즈장로교회 교인들과, 각 미주 지역 및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고인의 제자들, 해외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현지인들까지 추모사를 전하면서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

고인은 자신의 장례예배와 관련해 “환희와 기쁨의 예배가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고인의 뜻에 맞춰 이날 예배에서는 퀸즈장로교회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각각故 장영춘 목사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영상들을 편집해 보여주는 등 시종 희망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진행됐다.

이날 예배에서 기도했던 홍승룡 장로는故 장영춘 목사의 도미 과정과 이후의 사역에 대해 “원래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하나님이 자유주의 신학이 만연한 뉴욕에 보내 주



故 장영춘 목사 천국환송예배가 퀸즈장로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성국 목사가 예배를 인도했다. ©기독일보

셔서 한국교회의 뜨거운 신앙의 전통을 미동부 한인교회들에 심게 하셨다”면서 “고인은 주일예배, 주일 오후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등 한국교회 예배전통을 철저히 지키면서 뉴욕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한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고 추모했다.

KAPC 총회장 양수철 목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전3:11-1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때문에 영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쁜 신 뜻 높으신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수철 목사는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창조됐기에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라면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 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성경을 강조하고 있다. 평생 영원을 사모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고인의 삶을 기억하자”고 권면했다.

고인의 세계 선교를 위한 열정도 소개됐다. 고인은 직접 카자흐스탄과 캄보디아에 가서 현지 퀸즈장로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까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현지인 사역자를 길렀다. 중국과 러시아 현지인들은 이날 예배를 위해 고인을 추모하는 글을 보냈다.

고인은 미주 크리스천 신문을 통해 문서선교에도 앞장섰고, 특히 이 신문을 통해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 원했다. 또 세계목회자세미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전 세계 한인 목회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며, 목회의 새로운 힘도 얻을 수 있는 장을 마련했던 것을 큰 업적으로 소개했다.

김대원 기자

미국, 코로나 확산 후 성경 구매 증가... ‘위기에서 희망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미국인들의 성경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폭스뉴스(Foxnews)는 “미국 정부가 자택 대기령을 내린 가운데 미국인들은 온라인으로 책을 구매하고 있으며, 특히 성경을 읽으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지혜와 희망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 예로, 인스타그램 세대를 위해 성경을 판매하는 알라바스터 출판사(Alabaster Co.)의 성경 판매가 지난해보다 143% 증가했다는 점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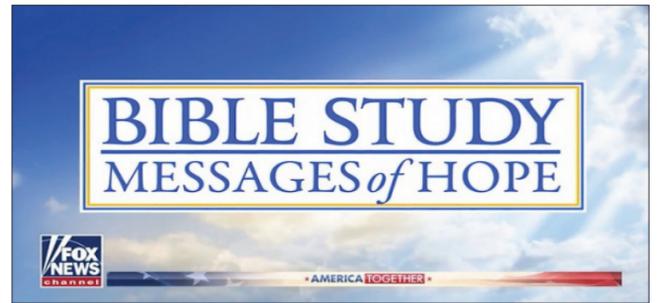
알라바스터 공동 창업자인 브라이언 청(Brian Chung)은 “삶을 휘몰아치는 전례 없는 펜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은 희망과 회복을 간절히 찾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성경을 읽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격려의 선물로서 성경을 구매한다.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갈망이 커졌다. 그들은 삶의 의미와 평안을 찾길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소매가맹점인 ‘라이프웨이 크리스천 리소스(LifeWay Christian Resources)’의 판매량도 지난해와 비교해 62%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라이프웨이 최고경영자(CEO) 벤 맨드렐은 “판매량 증가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위기와 불확실한 시기에 사람들은 성경에서 희망의 근원을 찾는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시기를 절대 혼자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위로의 말씀을 상기시켜 준다”고 밝혔다.

틴데일(Tyndale) 또한 성경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



미국 내 성경판매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FoxNews 영상 캡처

했다. 특히 스터디 그룹을 위한 ‘라임메스 성경(Immerse Bible)’은 이프어플리케이션 스터디성경(Life Application Study Bible)’은 44%,

김근혜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저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 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 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0-0112, (323)735-3180

NEW COVENANT ACADEMY est. 1999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21st ANNIVERSARY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 킨더부터 12학년 WASC 인준 학교
- AP 및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제공
- 100% UC 계열 대학 진학
- 졸업생 평균 SAT 점수 1390점
- 학업성과 전국 톱 10% 내
- CIF 스포츠팀 (농구, 배구 등)
-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교사진
- 저렴한 학비 및 보조금/장학금 제공
- 교사 대 학생 비율 1:1

Now Enrolling

ACSIS

(213) 487-5437 www.e-nca.org info@e-nca.org

와싱턴중앙장로교회, 61개 미자립교회 렌트비 지원

당초 50개 교회에서 11개 교회 더 추가...1천 달러씩 2개월 지원



와싱턴중앙장로교회가 지역 미자립교회 렌트비 지원 규모를 총 61개 교회로 늘렸다. 이 밖에도 KCPC 사랑나눔 운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있다.

와싱턴중앙장로교회(담임 류응렬 목사)가 'KCPC 사랑나눔'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미자립교회 렌트비 지원을 비롯해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가운데 미자립교회 지원 규모를 총 61개까지 늘려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교회 관계자가 22일 밝혔다.

당초 와싱턴중앙장로교회는 'KCPC 사랑나눔'을 위해 2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해, 10만 달러는 지역 미자립교회 50개 교회의 렌트비를 2개월 동안 지원하는데 사용하고, 다른 10만 달러는 주변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했었다.

박상근 행정목사는 이와 관련, "지원을 요청한 교회 숫자가 주일

까지 59개였고, 오늘까지 또 2개 교회가 늘어 총 61개 교회가 연락을 주셨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교회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는 예산을 초과 집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상근 목사는 또 "KCPC 사랑

나눔'이 알려진 바와 같이 몇몇 성도들의 섬김으로 발단된 것처럼, 이번 미자립교회 렌트비 지원 또한 지역교회들에 더욱 확산돼 견딜만한 교회들이 주변의 어려운 교회를 도우며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기로 소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KCPC 사랑나눔'은 부활절 직후인 4월 14일~16일까지 3일간 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된 '사랑의 쌀 나누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주변 이웃 돕기에 들어갔다. 교회측에 따르면 'KCPC 사랑나눔'을 위한 교인들의 모금이 계속되고 있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이웃돕기 운동으로 진행된다. 특히 외출이 어려운 연로한 이들을 위한 '장바구니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폐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류응렬 목사는 부활주일을 맞아 성도들에게 '우리 생애 가장 특별한 부활주일'이라는 제목의 묵회칼럼을 실은 바 있다. 칼

럼에서 류응렬 목사는 "먼지보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무너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다"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소망이 없는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야 할 끝어진 존재인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오르셨음에 감사드립니다"고 강조했다.

또 류응렬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일상의 평범한 일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지나치는 조그마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웠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드리는 한번의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도 다시금 깨닫는다"면서 "교회 문은 닫지만 예배의 문은 더욱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한다.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문을 열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밝혔다.

김대원 기자

LA 온누리교회 전문가 초빙 자기돌봄 온라인 특강 개설

4월 22, 25일 심리상담, 4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체력운동 8회 실시

코로나 확진자 예방 프로젝트
근육량 늘리고 면역력 올리는 기초체력 운동

8회 무료 프로그램
2020년 4월 24일(금)부터 매주 화/금 오후 5시~40분
강사: 박영배 퍼스널 트레이너 (전 아이스하키 한국 국가대표)

함께라서 다행이야
불안한 감정을 이해하고 가족관계를 바로 세우는 크리스찬 카운셀링 세미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에 머물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몸과 마음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기돌봄(Self-care) 온

라인 특강'이 열린다.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 LA온누리교회(담임목사 이정엽)가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확진자 예방 프로젝트'와 화목한 가족관계를 위한 '함께라서 다행이야'를 무료 온라인 강의를 준비했다. 강의는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을 사용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http://yudogo.com>에서 신청하면 줌 접속번호를 받을 수 있다.

몸 건강을 위한 '확진자 예방 프로젝트'는 오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5시 8회에 걸쳐 진행된다. 강사로는 전 대한민국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선수이자 퍼스널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박영배 코치를 초청했다.

한자서는 규칙적으로 하기 힘든 운동을 한달 동안 꾸준히 하다보면 근육량이 늘어나고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이후에도 가정에서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습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주최측은 기대하고 있다. 운동 시간은 1회 40분이다.

마음 건강을 위한 '함께라서 다행이야'는 오는 22일과 25일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진행된다. 자신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진단하고 마음챙김(mindfulness)을 통해 가족관계를 '집'이 아닌 '쉼'으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강의는 결혼과 가족상담(MFT)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성심 카운슬러가 맡았다.

이번 행사를 마련한 LA 온누리교회 측은 "자가격리 권고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단조로운 실내 생활은 운동 부족, 사회적 관계 단절은 스트레스와 불안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함께하는 운동과 심리세미나를 통해 그간 단절됐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지금 겪는 어려움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아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동기부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 특강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웹사이트(YuDoGo.com)에서 등록을 하면 이메일로 접속번호를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얻을 수 있다.

LA 온누리교회는 앞으로도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지식을 나누는 세미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CMMI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www.cmmllogos.org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별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2020 - 2021 학년도 **장학생 모집 공고**

담임목사 김경진 Senior Pastor Rev. Gyeongjin Kim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 (Scholarship Committee of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에서 크리스천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 3기 기쁜우리교회 장학생들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신청 대상

- 본 주소지 혹은 학교가 Southern California 인 정규 4년제 대학(원)생
- Categories: i)General ii)PK & MK iii)Seminary

선발 일정

- 신청서 접수기간: 2020년 3월 15일 ~ 4월 26일
- 선발 결과 발표: 2020년 7월 12일 예정
- 장학금 수여식: 2020년 8월 중순 예정 (추후 발표)

선발 인원 00명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기쁜우리교회 홈페이지 www.joyfulccc.org를 통해 자세한 신청 안내 받으시고 원서접수는 scholarship2020@joyfulccc.org로 하시거나 아래 주소로 우편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ATTN: Scholarship Committee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P.O. Box 270, Glendale, CA 91209

“코로나19에도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인터뷰] 주백성교회 김성규 목사

코로나19 사태로 대다수 미주 한인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가운데서도 곳곳에 현장 예배를 지키고 있는 교회가 있어 화제다. 주백성교회(담임 김성규 목사)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주일예배를 그대로 예배당에서 드리고 있다.

물론 코로나 사태 이후 예배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배당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교인들이 많아 2번의 예배를 3번으로 늘렸다. 10명 이상 모임 제한 권고를 따라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는 교인을 9명으로 줄여야 했다. 주일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이나 예배당 출입 시 손 세정제를 사용하는 장면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교인들은 예전처럼 가까이 모여 앉아 예배드릴 수 없지만 주일에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감염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65세 이상 교인들과 감기 증상이 있는 교인,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원



김성규 목사는 “예배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 본질적 가치와 교회의 하나됨”이라 말했다.

하는 교인들을 위해 주일 1부 예배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함께 예배드리도록 했다.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거의 모든 교회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할 때, 현장예배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이유는 ‘코로나 사태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이란

예측 때문이었다.

김성규 목사는 “많은 교회가 코로나 사태 초기 내리진 제한명령이 2주, 혹은 단기간이라는 조건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었다. 또 현장 예배

를 언제 다시 재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에 온라인 예배로 완전히 전환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 현장예배를 지키고 있다”고 했다.

현장예배를 지속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도 많았다. 주변에서는 ‘이웃을 생각해이라도 교회가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배를 유지하면서 교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떠오르는 성경구절이 마태복음 22장 37-39절 말씀이었다.

“우리가 반드시 이웃을 배려하고 우리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전에 해야 할 일이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뜻입니다. 현장예배를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김성규 목사는 현장 예배를 지속하고 있지만 예배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 본질적 가치와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말한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인데 장소를 놓고 울고 그릇을 따지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더 큰 가치를 잃어버리진 않을까 하는데 따른 우려다.

김 목사는 “어떤 경우에도 예배 장소를 이유로 서로를 판단하거나 비난하면서 분리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교회의 하나 됨이라는 가치를 붙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생명의 주관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 이시기에 코로나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와 교회의 죄악, 성경에서 벗어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 땅을 바라보시며 인간의 죄악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세계예수교장로회 제44회 총회, 화상 총회로 개최된다

6월 2일(화) 300여 총대 온라인으로 임원 선거 및 긴급 현안 다룰 예정



지난해 시애틀빌립보장로교회에서 진행된 세계예수교장로회(WKPC) 제43회 정기총회

세계예수교장로회(WKPC) 총회장 최인근 목사, 부총회장 정우용 목사는 코로나 19사태로 당초 6월 2일(화)부터 메릴랜드 볼티모어 힐튼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44회 정기총회를 줌(Zoom)을 이용한 화상 총회로 대체해 열기로 결정했다.

화상총회는 계획된 총회 일정

을 따라 6월 2일 진행되며 300여 명의 총대가 화상으로 모여 임원 선거와 긴급한 현안을 다루게 된다. 그 외 안건은 정회 후 코로나 19 사태가 안정된 후 모든 총대 회원들이 모여 속회 총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세계예수교장로회는 “코로나 19 사태로 미 전국의 총대들이 화상으로 모여 진행하게

됐다. 직접 대면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도 크지만 시간과 공간, 이동의 제약 없이 모든 총대들이 참석할 수 있어 감사한 면도 적지 않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화상회의 시스템을 발전시켜 총회 발전과 복음의 확장을 도모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애프터 코로나 준비? 매일 아침 최신 IT 정보 얻는 것부터 시작

“재미있는 IT” 윤승준 대표가 코로나19로 발이 묶인 한인들에게 매일 아침 카카오톡을 통해 무료로 스마트폰 사용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40년 경력의 IT 전문가인 윤 대표는 카카오톡 앱을 사용한 전자잡지를 통해 최신 IT 정보를 무료로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읽기가 불편한 분들을 위해 청취 기능을 마련해 알아서 읽어주는 편리함이 돋보인다.

윤 대표는 “애프터 코로나(After Corona)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이 사태가 진정된 후 우리 삶은 아주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며 “그 중심에 있는 IT 상식을 넓혀가면서 나에게 적용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매일 아침 IT 전자신문 구독은 카



윤승준 집사

매일 아침 IT 전자신문 구독은 사이트 <https://open.kakao.com/o/gavTD76b>, 또는 카카오톡 검색란에서 돋보기 버튼을 누르고 ‘슬아생’을 검색해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다.

윤 대표는 “먼저 배운 사람이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며 “전문가가 제공하는 수준 있는 내용이니 많은 이용이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909-971-7720

이인규 기자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려받으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현대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54

“팔레스타인에서 보내온 선교편지”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해 필자는 물론 같이 동역하는 선교단체 동역자들의 관심은 온통 열방의 선교지에 가 있다. 장단기 선교사들, 학생 선교사들 등의 안부가 여간 염려되는 것이 아니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팔레스타인 선교사에게서 온 선교 편지를 받은 그대로 기재한다.

“목사님 미국의 상황이 안 좋다고 하는데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지부의 동역자들의 안부를 여쭙니다. 코로나로 인해 도시가 봉쇄된 상태로 한 달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시아인만 보면 소리를 지르고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견뎌 있다는 것을 이해한 것인지 필요한 것은 없냐고 물어봐주기도 하고 주일에 예배를 섬기기 위해 갈 때는 경찰들이 손을 흔들어주기도 합니다.

지금도 가끔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웃어주고 손을 흔들어주면 무안해하며 인사를 하고 지나갑니다. 멀리 있는 친구들이 계속 SNS를 통해 저희의 안부를 물어봐주고 이웃 집 무슬림 할아버지는 집에서 구운 빵이라고 보내주시고 가정에 초대해 주시기도 하고 또 저희 모임에 나오는 자매의 부모님(아직은 무수립)은 우리 가족은 이제 친척과 같은 사람들니 방문해도 된다고 허락해서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주님께 대해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고난 중에 더욱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사에 나온 지 햇수로 19년이 되었는데 돌아보니 안식년 때도 늘 국내와 해외 강의로 바쁘게 지내는 바람에 지금처럼 집에 머물렀던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책을 읽고 공부 하기도 하고 또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얘기하고 놀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안식의 시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매 주일 예배에는 새로운 형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수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갈 곳이 없는 현지 친구들이 예배에 나오기도 하고 또 멀리 있어서 모이지 못하는 팀사역자들과 친구들은 인터넷으로 함께 동참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라고는 하지만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찬양소리가 끊어지고 화면이 멈추는 것이 잦아 사실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함께 하기는 어려운 예배지만 그래도 같이 얼굴을 보고 입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1년 전 선교훈련을 받고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함께 다녀왔던 현지인 자매가 간사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며칠 전 인터뷰를 하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제자로 제대로 훈련받고 싶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으며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자매는 북부 나사렛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만날 수 없고 어떻게 섬겨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자신의 민족을 위한 꿈을 꾸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1.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초대교회와 같은 구원의 은혜가 더해져 주시옵소서. 2.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기 민족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주의 제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히 간사로 헌신한 그 자매가 거룩한 주의 제자로 사역자로 훈련되게 하시옵소서. 3.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 동안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안식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목사님! 지난 1월 오셔서 전도하셨던 A형제도 지금은 인터넷 예배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안부 전합니다.”

아직은 모두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안부를 묻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 조만간 이 고난을 이기고 열방의 선교지에서는 승리의 소식들이 많이 전해져 올 것을 믿는다.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행복 만들기 (12) 위로

위로가 행복을 만듭니다!

톨스토이의 중편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주는 소설입니다. 성공가도를 달리던 마흔다섯 살의 중견판사 이반 일리치가 죽음을 직면합니다. 아주 사소한 사고로 시작된 몇 달간의 투병 끝에 그는 죽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살아갈 날의 기대와 꿈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희망찬 중년의 세월에 사망의 그림자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정점에서 죽음을 앞둔 이반 일리치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처음에 그는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죽음 때문에 신과 운명을 향해 분노합니다. 왜 죽어야 하는지를 되물으며 흥분하다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이반 일리치가 죽음을 맞닥뜨린 지점에서 바라보는 자신의 삶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추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 상황에서 이반 일리치를 정말로 괴롭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무도 자기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서러워하는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아무만져주고, 입을 맞춰주고, 자기를 위해 눈물 흘려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자신도 누군가를 위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을 위로해 주지 않아 맘속으로 분노하고 혐오하는 그 냉정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고 당황하며 분노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그토록 목말랐던 위로를 받습니다. 먼저 하인 게라심이 자신의 말을 알아주고 위로합니다. 또 죽음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아들 바사가 자신의 아픔을 알아줍니다.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위로로 인생 최후의 고만이 해결됩니다. 위로받지 못해서 허덕이며 분노하던 삶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죽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음을 맞이합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죽음준비 교과서와 같은 작품입니다. 아울러 톨스토이가 집착했던 ‘삶의 의미’를 가르칩니다. 이 작품을 통해 톨스토이는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요 죽음의 준비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생은 위로해야 하고 위로받아야 합니다.

최근에 위로하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 받은 위로 중에 기억나는 위로는 무엇인가요?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위로는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위로는 공허히 여기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위로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위로는 누구나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동분서주하는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의 수고를 공허히 여기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위로에 능력이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사람을 살립니다. 바른 위로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이 담긴 위로를 통하여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래전 영국에 빼와 관절에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해리 플래트’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몸이 병약한 해리 플래트는 성장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가 아프고 힘들 때면 아버지가 그를 위로해주었습니다. “아들아, 너의 상처를 별로 만들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상처를 별로 만들

어라.” 아버지의 위로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해리 플래트는 아버지의 위로를 붙잡고 슬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공부를 하여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 평생 의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의술과 의학 발달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는 현대 성형수술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영국 외과학회 회장과 국제 외과학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그가 육체의 약함을 극복한 힘도, 그가 세계 의술 발전에 기여한 힘도 아버지의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이런 실례는 역사 속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위로는 언제나 필요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 더욱 필요합니다. 승승장구하던 판사 일리치는 위로는 없어도 잘 살았고, 위로의 필요성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병들고 아파 죽음을 직면할 때에 위로에 갈급합니다. 삶에 위로가 필요한 날 자신을 보니 위로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절실하게 위로는 필요한 날에 위로받지 못한 그는 절망하고 울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죽어가는 이반 일리치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위로에 매달리는 장면은 위로의 가치와 중요성을 웅변합니다. 그는 위로 때문에 분노하며 슬퍼하고 위로받으며 평안을 누립니다. 만약 이반 일리치가 다시 인생을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분명히 그는 위로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위로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위로받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코로나 시대는 위로는 필요한 시대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위로는 필요합니다. 사장님도, 직원도, 고객도 모두 위로는 필요합니다. 위로를 주고받음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위로는 풍성한 삶이 행복이 살아 있는 행복 생태계입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SAMSUNG SHIPPING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www.samsungmoving.com
1-877-580-2424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주정부 허가: MTR-190586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Fully Insured & Bonded

“北 주민들이여, 죽지 말고 살아남아 달라”

“꽃제비 출신에 장애인으로 여기까지... 기적 북한에도 자유와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

탈북 인권운동가로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미래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비례대표)에 당선된 지성호 나우(NAUH) 대표가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탈북자 강제복송 방지법 제정에 힘쓸 것”이라며 “또 국제사회와 북한인권위원회 연맹을 조직해 세계 각국이 북한 인권법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지 대표는 17일 본지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며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한쪽 다리와 손가락을 잃은 장애인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자유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했다.

이번 4.15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 중 탈북자는 지 대표와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미래통합

당 서울 강남갑)다. 이들에 앞서 지난 1994년 탈북한 조명철 전 통일교육원장이 2012년 당시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바 있어서 이번이 두 번째다. 그러나 북한에서 소위 ‘고위층’이 아니었던 탈북자는 지 대표가 유일하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탈북하고 살아남은 것도 기적인데, 대한민국에 와 대학교를 다니고 다른 탈북자를 구하는 운동을 하다가 미국의 대통령까지 만났다(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30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연두교서에서 그를 직접 소개했다-편집자 주). 그리고 국회의원이 됐다. 어찌 기적이 아니라 할 수 있나”라고 했다.

지 대표는 “그러나 이것은 단지 나 자신만 잘 되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다. 주변을 살피고 더 많은 사



탈북자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성호 나우 대표 ©뉴스시스

람들, 특히 압제 속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의 눈물을 닦으라는 주님의 뜻”이라며 “북한에 자유와 복음을 전하고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는 일에 사용하시려고 저를 세우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 내 영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대한민국 천만 기독교인들이 절 위해 기도해주시고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

유했을 때 권리가 있다. 우리가 동포의 자유를 되찾아 주어야 한다”고 했다.

또 “탈북자 강제복송을 방지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싶다. 국민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탈북자를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또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인권위원회연맹을 조직하고 싶다. 이를 통해 세계 각국이 북한 인권법을 만들도록 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북한 인권은 단지 우리만이 아닌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끝으로 지 대표는 “북한 주민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 ‘죽지 말고 살아남아 달라,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아 달라’는 것”이라며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테니 나를 믿어 달라. 북한 탄광촌 시골에 살던 꽃제비, 피투성이로 장애인이 된 사람도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 26일부터 현장 예배 재개 예상



성도들 사진을 붙인 채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사랑의교회

부활절 기념행사 26일 여는 교회들 많아 19일 예배는, 26일 현장 재개 준비 성격

부활절 이후 첫 주일인 19일, 전국 대부분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9-10주째 유지하는 가운데,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4월 26일 또는 5월 3일 주일예배부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성도 수 56만여명의 ‘세계 최대 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회들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 날인 4월 19일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이후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4월 26일부터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리는 교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부활절 기념 행사를

2주 연기한 교회들도 있다.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는 4월 26일 현장 예배를 재개하면서 기하성(여의도) 총회와 함께하는 ‘부활절 축하 감사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12일 부활절 예배 당시 빈 좌석에 성도들의 사진을 부착해 화제를 모았던 서울 서초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는 19일 본당을 일부 개방해 1-4부 예배는 직분자들과 드린 후, 26일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부활절 기념 감사예배’를 연다. 교회 측은 “사회 전반이 코로나19 장기 국면을 대비하고 있다”며 “주중 모든 사역은 4월 25일 이후로 순연한다”고 밝혔다.

분당우리교회(담임 이찬수 목사)와 주안장로교회(담임 주승중 목

사)도 19일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며, 이후 현장 예배 재개 관련 움직임은 없다.

서울 강동 명성교회(원로 김삼환 목사)는 19일 중전대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직분자들 중심으로 현장 예배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도 현장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병행한다.

부활절인 12일 ‘드라이브 인 워십’을 시작했던 서울 용산-서초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는 26일 현장 예배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성도 수가 많은 온누리교회는 분산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토요일인 25일부터 주일인 26일까지 이틀간 주일예배를 드리며, ‘드라이브 인 워십’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구 지역도 서서히 현장 예배가 재개되고 있다. 대구 서문교회(담임 이상민 목사)와 경산 중앙교회(담임 김종원 목사)는 부활절인 12일부터, 대구 범어교회(담임 장영일 목사)와 동부교회(담임 김서택 목사), 동신교회(담임 권성수 목사) 등은 앞선 5일부터 각각 희망 성도들이 현장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부산 최대 교회인 수영로교회(담임 이규현 목사)도 26일 다시 교회문을 연다. 교구별로 시간대를 지정해 본인 확인 후 성도들을 입장시킨 뒤 예배드릴 예정이다.

이대웅 기자

혜암 이장식 박사, 100세 생일 맞아



혜암 이장식 박사 ©혜암신학연구소

혜암 이장식 박사(혜암신학연구소 초대 소장, 한신대 명예교수)가 17일 100번째 생일을 맞았다. 국내 신학자 중 최고령이다.

1921년 4월 17일 경남 진해에서 태어난 이 박사는 한국신학대학교(한신대) 제1회 졸업생으로 캐나다 퀸스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한 후 미국 뉴욕 유니언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를 취득했다. 예일대학교 신학부 연구교수를 거쳐 미국 아퀴나스 신학대학원에서 신학박사 학위(Ph.D.)를 받았다.

이후 한신대 교수, 계명대 교수, 예일대 신과대학 연구교수,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신과대학 명예 객원교수, 케냐 동아프리카 장로교신학대학 교수 등을 역임했다.

세계교회사와 아세아교회사,

한국교회사, 기독교신학사상사, 고대교회사, 기독교 사관의 문제, 연구 방법론, 어거스틴, 주기철, 본회퍼 연구의 교회사 인물론, 정통주의, 합리주의 등 교회사를 중심으로 연구했다.

한신대 정년 은퇴 후에는 아프리카 케냐로 떠나 10년간 선교활동을 했다. 귀국 후 혜암신학연구소 설립하고 한국의 보수와 진보를 아울러 신학의 지평을 넓히는 데 헌신했다.

『기독교 사상사』(I, II권, III권(공저)), 『현대교회학』, 『기독교 신조사 상·하』, 『기독교 사관의 역사』, 『기독교와 국가』, 『아시아 고대 기독교사』, 『젊은 어거스틴』, 『교부 오리게네스』, 『평신도는 누구인가?』, 『프로테스탄트 신앙원리』, 『존재하는 것과 사는 것』, 『교회의 본질과 교회개혁』, 『세계 교회사 이야기』 등 다수의 책을 집필했다.

김영한 박사(숭실대 명예교수, 기독교학술원장)는 “한 세기를 건 강하게 사시고 후학들에게 성경적이고 교회 친화적인 신학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백년 생일을 축하드리며 더욱 건강하시어 하나님께 영광과 명예가 되시고 한국교회에 좌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축하했다.

김진영 기자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ea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의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봄의 침묵에서 인간의 침묵으로(2)



박 동 식 교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조직신학

실 끈 같은 것으로 동여매고요. 그래서 하나의 새 동지가 탄생이 되더라고요. 새대가리가 절대로 아니지요.

가을에 낙엽이 질 때 나무들이 그동안 푸르게 입었던 옷들을 벗지만 새 동지만큼은 남아 있지요. 그리고 여름에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무의 뿌리는 뽑히는 경우가 있지만 새 동지는 부서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새들이 무슨 못이나 망치나 시멘트를 사용해서 동지를 짓는가요? 그저 입으로만 잇고 또 이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튼튼한 동지가 되는 것이 신기하지 않은가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라도 자연을 읽으라고 권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책을 읽는다. 그러나 더 큰 책이 있다. 창조된 세상의 실제 모습이다. 위를 보고 아래를 보고, 주목하여 읽으라. 당신이 발견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잉크로 글자를 쓰는 대신 친히 만드신 것들을 당신의 눈앞에 두셨다. 그보다 더 큰 음성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²⁾ 우리가 자연을 읽고 자연 속에 살아가야 할 이유 또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할 정도로 창조주 하나님이 모두에게 지어주신 자연 속을 걷고, 냄새 맡고, 그 아름다움에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일반은총을 누리는데 필요한 것일 것이며 우리 인간이 일상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의 한 날이 저물어 가니 자연의 한 날도 저물어 갑니다. 아니 반대로 이야기 하는 것이 이치상 맞겠군요. 자연의 한 날이 저무니 사람의 하루도 저물지요. 모두 편히 쉬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히 이 평안함을 즐기는 새 한 마리 옆으로 다른 새 한 마리 날아와 앉습니다. 수컷의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아름다운 여자를 보더라도 수컷들의 눈길이 한 번 더 가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대한 존재 자체의 끌림이자, 나약한 수컷의 복종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겠지요. 그러니 가수 김연자의 <십분 내로>라는 노래 가사에 “여자는 꽃이랍니다 혼자 두지 말아요” 하는 것이 한편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 수컷이 연신 무엇인가 지저귀는다고 있던 새가 몇 번 자리를 고쳐 앉으며 관심 없다는 신호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짹짹거리자 이내 포물선을 그리며 쉿하니 날아가 버립니다. 전문 용어로 차인 것이지요. 그러나 기죽지 않고 그 포물선 놓칠까 봐 뒤따라가는 수컷의 날갯짓이 더 바빠 보입니다. 부디 차여서 가슴앓이하지 말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6. 서로 풀어주고 나누는 자연

창밖으로 보면 큰 나무 두 그루가 서 있습니다. 그 나무들로 인해 시야가 가리긴 하지만 나무도 하나의 세계이더군요. 그 속에 셀 수 없이 많은 새들과 벌레들이 깃들여 있고 바람이 하늘거립니다. 나뭇잎과 가지가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하늘이 보입니다. 창밖에 세계가 서 있습니다.

큰 나무로 얼마의 새들이 날아듭니다. 몇 번의 푸드덕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잔가지 몇 개 떨어집니다. 잔가지도 나무의 몸인데 나무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새들을 내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오늘도 새들을 풀어 안아줍니다. 새들은 나무의 고마움을 알까요? 당연히 알겠지요.

새 한 마리, 헤엄쳐 강 건너는 사슴 등 위에 앉습니다. 앉아도 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앉습니다. 사슴도 전혀 개의치 않고요. 자연은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나 봅니다. 그런데 궁금하네요. 새는 왜 사슴 등에 앉을까요? 날아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고 빠른 것 같은데 새는 왜 그랬을까요? 또 다른 맛과 재미를 알았을 겁니다. 날갯짓을 하지 않아도 갈 수 있고 자신의

속도보다 천천히 가기에 주변도 더 자세히 살필 수 있기 때문이지 싶습니다.

바닷가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귀청이 찢어질 듯 갈매기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 봤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갈매기 한 마리가 지붕 위에서 마치 늑대가 울부짖는 것처럼 입을 최대한 벌리고는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수십 마리의 바닷새가 한 곳으로 날아옵니다. 가만히 보니 식당 종업원이 손질을 마친 물고기 꼬리들과 내장들을 바다에 내다 버리는데 그걸 보았던 갈매기 한 마리가 다른 갈매기들을 불러 모은 것이더군요. “여기 먹을 것이 있어!”라고 온 힘을 다해 외치는 듯했습니다. 누가 “새대가리”라 했던가요? “새대가리”도 밥은 나눠 먹을 줄 안다고 인간들에게 말하는 듯 합니다. 갈매기에게서 삶의 진리 한 조각을 배웁니다.

바람은 불고 나뭇잎은 흔들리고, 자연은 그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갑니다.

7. 자연을 통해 부여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며

에일 신학교 교수인 미로슬라브 볼프가 자신의 스승인 워르겐 볼트만 교수의 94번째 생일을 축하하면서 그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골짜기’, 즉 죽음의 골짜기에서 구해 주시지는 않으시지만, 바이러스에 기인한 자연 재난과 인간이 야기한 생태 파괴 가운데 두려워하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³⁾ 볼트만 교수의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죽어가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시는지는 또 다른 장에서 토론해야 할 부분이겠지요.

또 한 번의 계절이 바뀌어 가는 시점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제 완연히 봄입니다. 새싹이 피어나고 나무마다 새순이 돋고 대지와 산들이 푸르러집니다. 가만히 보니 사람과 자연은 계절을 맞이하는 방식은 반대인 것 같네요. 사람은 겨울이 지나 봄을 맞이하고 여름으로 갈수록 옷을 벗고 가을을 지나 다시 겨울로 갈수록 옷을 꺼입는데, 자연은 여름으로 갈수록 꺼입고 겨울로 갈수록 벗습니다.

둘의 삶의 패턴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뒤집으면 억지스럽지만 그대로 두면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양식이 있고 자연이 살아가는 양식이 있으니 둘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삶 아니겠습니까?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에게 자신의 삶의 양식을 강요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그러면 부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계절이 순리에 따라 돌고 돌듯이 인생도 순리에 따라 돌고 돌아야 할 것입니다.

비 온 뒤 싱그러움을 정말로 모처럼 맞본 적이 있습니다. 비가 색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비는 자연이 원래 가진 색을 드러나게 해 줍니다. 산천초목은 녹색을 품고 있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누런색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비 한 번 오면 색이 바뀌지요. 비는 존재를 존재되게 해 줍니다.

은혜가 이런 것이겠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는 것은 위에서 부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만나는 자연은 있는 듯 없는 듯 우리를 감쌀 때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웬은 하나님께 “지진이나 폭풍, 번개 가운데 머무시는 게 아니라 등을 어루만져주시는 부드러운 바람결 속에 계심을 깨달을 수 있다”⁴⁾고 했습니다. 자연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두울 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낮에는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 지나다다가 어둠이 내려앉음과 동시에 불빛이 쬐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어두울 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19를 관통하면서 어느 시대보다 더 어두운 지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놓쳤거나 굳이 보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보면서, 새는 자기가 언제 날갯짓을 해야 할지를 알듯이, 우리도 다시금 일어설 날을 고대하며 이 막연한 고난의 시간을 침묵하며 보내면 좋겠습니다. (끝)

1) 정호승, 『위안』 (열림원, 2003), 28.
2) 알리스터 맥그래스, 홍종락 옮김, 『우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복있는사람, 2017), 28에서 재인용.
3) <https://www.facebook.com/miroslav.volf.12>, “God does not spare us from the “dark valley,” the valley of death, but GOD IS WITH US IN OUR FEARS of natural catastrophes caused by viruses and ecological catastrophes caused by humans.”
4) 헨리 나우웬, 최중훈 옮김, 『제네시 일기』 (포이에마, 2010), 135.

4. 자연은 아름다워!

바람에 자신을 맡긴 새는 날다. 하늘은 바다를 품고 있습니다. 그 하늘을 품어 봅니다. 흙먼지가 일어납니다. 먼지라고는 미세 먼지나 도심의 쾌쾌한 먼지가 전부인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산길이나 시골길 흙먼지는 정겹습니다. 노을 또한 아름답습니다. 때로는 물의 연기(演技)를 볼 때가 있습니다. 물의 유희(遊戯) 말이지요. 자연이 펼치는 공연이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신기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에게 가장 신기한 것은 인간이 달나라에 갔다 왔던 사건도 아니고, 몇백 층 되는 빌딩을 인간이 지었다는 것도 아니고, 기인들의 묘기 행진도 아닙니다. 저에게 가장 신기한 것 중 하나는, 새들이 자기들 집을 짓는 모습입니다. 새들이 집을 짓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나뭇가지를 주워 가지고 옵니다. 때로는 나뭇가지를 입으로 흔들어서는 부러뜨려서 가지고 와서 집을 짓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숏필 같은 것도 물어 오고 깃털도 가져오고 자리에 깔고 연신 발로 다지더군요. 동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5. 자연의 하루

하루의 슬픔이 서쪽 하늘 끝에 고요히 물듭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아득합니다. 아득아득 해 질 무렵의 열은 밝음이 좋습니다. 노을이 늘 붉지만은 않습니다. 힘을 뺐 노을은 그윽하기까지 하죠. 집에 가지 않으려고 끝까지 뺨강 부리는 아이와 달리 태양은 서산 너머로 가지 않으려고 발걸음 산꼭대기에 걸치고 끝까지 버티지 않습니다. 대신 ‘가면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절절히 약속하는 그런 붉은 눈물만이 있을 뿐이지요. 그 절묘한 순간이 마치 “님의 침묵” 같습니다.

새들도 날갯짓이 바쁩니다. 새는 날기 위해 접었던 날개를 꺼냅니다. 날개를 ‘펼다’는 말을 흔히 사용하지만, 그 과정을 우연히 보니 속에 간직했던 날개를 ‘꺼낸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듯하더군요. 이제 다들 제 보금자리로 갈 시간인가 봅니다. 그런 와중에 전깃줄에 앉아 유

담임목사 청빙

중서부 미시간주 칼라마주에 위치한 칼라마주 한인교회에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 귀한 복음 전파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힘든 이민자의 삶을 살고있는 교인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인내로 인도해주실 목자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1982년에 창립한 칼라마주 한인교회는 북미개혁교단에 속해있으며, 약 60여명의 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나누고 있는, 작지만 큰 교회입니다.

<http://kzoochurch.org/kzoochurch/index.php>
<https://www.facebook.com/kzoochurch/>

우리가 살고있는 이 곳 칼라마주는, 미국 중서부 미시간주의 서남쪽에 위치한 중간 규모의 도시로서, 인근 유동인구까지 합치면 약 33만 명이 살고있는 곳입니다. 서쪽으로는 시카고가 약 두시간 거리에 있고, 동쪽으로는 디트로이트가 역시 비슷한 시간대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도시로의 접근성도 꽤 괜찮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 도시(Calvin Seminary가 소재)로 알려진 그랜드 래피즈가 한 시간 거리에 있고, 깨끗하고 조용한 소도시 특성으로 인해, 자녀들의 교육적인 면에서 안전하고 적합한 환경인 뿐만 아니라, 사계절이 뚜렷한 날씨와 자연 친화적인 환경, 그리고 미시간호수가 지척에 있어 계절에 상관없이 바닷가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원자격

1.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으로서, 개혁교단에 소속되어 있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2. 목사안수를 받으셨고, 부목사나 전도사 경험이 있는 분을 모십니다. 담임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을 선호하지만, 없어도 무방합니다.
3.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기본적인 의사 소통이 가능하시면 좋겠습니다.
4. 현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목회하시는 데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을 모십니다.

제출서류

1. 이력서,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목사 안수증명서사본
2. 목회 비전 및 계획을 포함한 자기 및 동반 가족 소개서
3. 추천서 2장 (목회자 추천서 1부 필수, 추천인의 연락처 기재요망)
4. 최근 설교 2편 (MP3 file 혹은 Youtube link)

제출 기한 및 제출처

1. 2020년 5월 31일까지 접수된 서류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생길 시 연장 가능합니다.
2. 추천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oreanchurchkalamazoo@gmail.com
3. 추천서는 추천하시는 분이 개별적으로 위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고, 추천서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부탁드립니다.

기타

1. 4 bedroom 사택 (전기와 가스 포함)을 교회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2. 접수된 서류는 다시 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라며, 접수된 지원서는 지원자 이메일을 통해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지원 관련 및 저희가 광고에 미처 실지 못한 사항에 대한 질문이나, 저희 교회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의 이메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칼라마주 한인교회
Korean Christian Reformed Church of Kalamazoo

美 법무부 “드라이브 인 예배 참석자 벌금 부과는 위험”



미시시피 주 그린빌 시에 소재한 템플 침례교회. © 템플 침례교회 페이스북

미시시피주 그린빌 템플 침례교회, 시 당국 상대로 소송 제기

미국 미시시피 주 그린빌 시에 소재한 한 교회가 '드라이브 인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에게 벌금을 부과한 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미 법무부가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14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윌리엄 바(William Barr) 법무장관은 “그린빌 시 당국의 정책은 종교 단체만을 지목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은 충분히 필요하지만 자유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종교단체만을 선별해 단속하지 말고 형평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린빌 시 당국은 드라이브 인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에게 5백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교회 근처에 위치한 드라이브 인 레스토랑에 방문한 시민들이 심지어 창문을 연 상태로 대화하는 것은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저녁 드라이브 인 예배를 드린 템플 침례교회를 지원하는 성명을 통해 “주 정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교인들은 교회 주차장에서 목회자의 설교 방송을 라디오 주파수에 맞춰 창문을 닫은 채 차 안에서 듣고 있었다”고 했다.

에릭 시몬스 그린빌 시장은 지난 13일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입장을 변경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그러한 모임에 대한 금지 조치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교회는 시 당국의 명령이 수정헌법 제 1조에 근거한 종교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바 법무장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관

한 연방정부나 지역 당국이 발표한 지침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헌법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자유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을 허용한다. 하지만 종교 단체와 신자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템플 침례교회 담임인 스킷 목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부활절 주일예배를 방송하고 있으며 많은 교인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접근하고 있다”며 “하지만 노인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 이것이 안전하고 창의적인 방법인 드라이브인 예배를 선택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도움으로 지난 10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 급진적 이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며 “그린빌 시 당국이 법원의 개입 없이 드라이브인 예배에 대한 금지령을 철회하고 미국 전역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교회들도 예배할 자유를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캇 목사는 “전국의 기독교인들로부터 받은 성원에 크게 감사하다”면서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뉴욕, 플로리다, 콜로라도의 그리스도인, 설교자, 선교사, 모든 종류의 기독교 사역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바 법무장관은 “법무부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책을 종교 단체만을 지목해 적용하는 주 정부의 차별적인 제한에 대해 종교 자유는 수호되어야 한다고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교회혁신교회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평일부 예배 오전 11:00
평일부 예배 오후 7:00
평일부 예배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 수, 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토)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기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2세대를 영육하며, 이방인들을 치유하며, 선교를 영감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son 교차로)
T. (213) 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회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수, 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 1블럭)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O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이청년예배 오후 12:30
청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본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본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본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 수) 오전 5:30
리셋예배(델리엔데) (소셜메)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디오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7:30(화-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신.초 정신의 흠뻑,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수) 신묘나기 만리부 지역 유망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삶이 되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cs.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 수, 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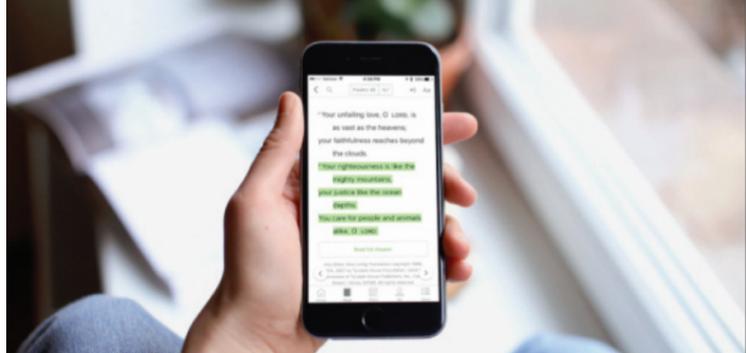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조영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올해 고난주간, 성경 읽기 54% 증가... 가장 많이 공유한 성구는?



©라이프닷교회

많은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대면 예배를 중단했지만 올해 고난 주간 성경 읽기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유버전 앱이 밝혔다.

14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지난 2008년 미국 라이프닷교회가 출시한 유버전 앱에 따르면 올해 종려주일부터 부활절까지 기간 동안 성경 읽기 실행이 지난해보다 54% 더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고난주간에는 약 2천640만개의 성경읽기계획이 완료되었다고 보고했다. 올해에는 성경읽기계획이 약 4천6백만개로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상 증가한 셈이다.

유버전앱은 또한 지난해 고난주간에는 1천80만 구절이 공유되었지만, 올해에는 30% 증가한 1천410만 구절로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라이프닷교회의 대변인은 “부활절은 성경구절 공유와 성경읽기계획 완료 숫자가 가장 높은 날이었다”며 “올해 부활절은 조금 달랐지만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을 막지 못

했다”고 밝혔다. 유버전은 또한 고난주간 어린이용 성경 앱 사용자 520만명이 성경 이야기 시청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대변인은 “유버전앱이 출시된 이후, 그간의 기록을 모두 돌파했다. 유버전 앱 역사상 2020년 3월은 개인방문자 수, 앱 공유, 구절 공유, 앱 내 성경 검색, 오디오 성경 재생 및 비디오 재생에서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다”며 “지난 3월은 어린이용 바이블 앱 설치 및 어린이용 바이블 앱 성경 스토리 완료에 있어서도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가장 많이 공유된 성경구절은 마가복음 16장 6절(“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느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과 시편 30편 5절(“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이었다.

이미경 기자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시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00(금)
중보기도회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5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여 내 길에 빛이오니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침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한아침년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MP예배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예배 오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토) 오전 6:00
1954 Rimoldi St., Northridge, CA 91326
T. (818)935-5887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서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유중등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Bible Study 오후 7:0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이동진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믿어라,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일성경대강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창조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n.com

주일 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윌로우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 후임 발표

2/42 커뮤니티 교회 설립한 데이빗 더밋 목사



윌로우크릭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새로운 담임 목사 임명에 대한 공지. © 윌로우크릭 교회 홈페이지

설립자인 빌 하이벨스 목사의 성추문 의혹으로 내용을 겪었던 윌로우크릭 교회가 새로운 담임목사를 내정했다. 15일 CBN뉴스는 윌로우크릭 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로 데이빗 더밋(Dave Dummitt) 목사를 선출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휘튼 칼리지와 애즈버리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더밋 목사는 지난 12년 간 미시간에 소재한 '2/42 커뮤니티 교회'를 설립하고 이끌었다. 더밋 목사를 비롯한 동료들은 교회를 개척해 미시간 7개 캠퍼스에서 1만명이 넘는 교인들을 모았다. 이 교회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 출석률이 급증했다. CBN뉴스는 "시카고 지역 근처에 8개 캠퍼스를 구축한 윌로우크릭 교회는 회중을 인도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윌로우크릭 교회는 전 세계적인 회중을 이끄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다"며 "윌로우크릭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한 곳으로 성장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교회 중 하나이며 미국 최대의 교회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윌로우크릭 교회는 지난 1975년 빌 하이벨스(Bill Hybels)에 의해 설립됐다. 그는 지난 2018년 일어난 성추문 의혹으로 인해 논란이 되자 사임했다. 이후 교회는 담임목사 청빙위원회를 구성해 목회자를 물색하는 중이었다. 윌로우크릭의 목회자 청빙을 대리했던 행정 전문업체이자 연구단체인 반데르블로멘(Vanderbloemen)은 "모든 규모의 교회에서 수백 명의 담임목회자를 서치했다. 윌로우크릭에 출석하는 수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었다. 윌로우크릭의 장로들이 가진 신실함과 용기,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 윌로우크릭의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이미경 기자

美 남침례신학교 앨버트 몰러 총장, 트럼프 지지 선언



앨버트 몰러(Albert Mohler Jr.) 총장 ©크리스천포스트

미국 남침례신학교 앨버트 몰러(Albert Mohler Jr.) 총장이 오는 2020년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17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앨버트 몰러 총장이 지난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2020년 대선에서는 그에게 투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는 T4G 프리 컨퍼런스의 유튜브 방송에서 "지난 2016년 도널드 트럼프에 투표하지 않았다. 사실 힐러리 클린턴에게도 투표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고백을 하기 앞서, 지난 2016년 대선에서 공화당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설명하면서 1980년 로널드 레이건을 지지한 후 공화당 후보자들에게 투표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반대하는 '네버트럼프'(Never Trump) 캠페인에 속한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도덕적 성격에 대한 그의 의구심을 버리지 않았으며, 일부 비평가들처럼 그에게 "거짓된 신심과 독선"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현재에도 트럼프의 도덕적 성격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깊은 인상

을 받았다"면서 "지난 2016년 그를 지지하기를 거부했을 때와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는 어느 정당이나 미국 대통령보다 나태 이슈나 행정명령에 더 일관성이 있었다. 그는 대통령직보다 오래 지속하는 연방 대법관 임명에 대한 약속의 질에 있어 어느 공화당 후보보다 더 일관성이 있었다. 오는 2020년 대선에서는 다른 정치적 계산을 할 것이다. 2020년은 2016년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몰러 총장은 최근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지난 2017년 보수 성향의 크리스천인 닐 고서치(Neil M. Gorsuch)를 연방대법관으로 임명할 때부터 트럼프가 캠페인 약속을 이행 할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몰러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위 라이리 반즈(Riley Barnes)를 포함해 그의 행정부 전체에 걸쳐 많은 복음주의자를 임명했다면서 "트럼프가 대선 공약을 지켰기 때문에 2020년에는 지난 2016년 대선의 80%보다 더 큰 비율로 복음주의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WP는 전했다.

강혜진 기자

러셀 무어 “미국 내 종교자유 위협받는 사례들 있어” 경고



러셀 무어 목사 ©미국 윤리와공공정책센터

미국 남침례교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 러셀 무어 위원장이 미국 내 몇몇 지역에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인정하는 올바른 한계선들(right boundaries)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교회를 폐쇄 혹은 감시하기 시작할 것이라 우려를 낳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벵티스트뉴스가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무어 위원장은 최근에 쓴 칼럼을 통해 대부분의 정부 관계자들은 교회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이나 과열된 언사를 하지 않으나, 몇몇은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는 코로나 이후 미국 내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몇몇 사례라고 지적했다.

3월 중순부터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 온라인 동영상이나 교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차 안에서 설교를 듣는 ‘드라이브인(drive-in)’ 예배 형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미국 루이즈빌시의 시장 그레 피셔(Greg Fischer)는 부활절을 며칠 앞둔 지난 10일에,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러 교회 주차장에 온 차량들의 번호판을 경찰이 녹화할 것이라 발표했다. 그러자 기독교계 지도자들의 반대와 교회의 소송이 이어졌다. 연방판사는 루이즈빌시

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부활절 공동 기념행사를 불법화 했다(criminalized)’며 이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위헌(beyond all reason, unconstitutional)”이라고 판결했다.

무어 위원장은 자신의 컬럼에서 루이즈빌 시장의 조치에 대해 “종교나 기독교 예배를 타겟삼은 것이 아니라 보기에 매우 어려우며, 켄터키 주는 여전히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로 술을 사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합법적인 ‘드라이브 스루’ 술을 마실 수 있다면, ‘드라이브인(drive-in)’ 예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지도자들에게 “언어 사용에 있어 신중해야 하고 설명 또한 잘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게는 공공 모임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범용)적용하거나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정책이 교회나 종교 단체를 타겟으로 하거나 지목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된다”며 “그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인 침해(unconstitutional violation)’ 문제”라고 비판했다.

강해진 기자

켄자스주 대형교회, RIP 통해 지역주민 470만 달러 의료부채 탕감



최근 지역 주민 의료부채 470만불을 탕감한 토페카의 펠로우십 성경교회,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예배로 전환하면서 교회 또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웃을 위한 사랑을 실천했다. ©Rachel Lock

미국 교회들이 의료 부채 구제 단체인 알아이피 메디컬 댐(RIP Medical Debt, 이하 RIP)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료 부채를 탕감해주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도 470만 달러의 지역 의료부채를 교회가 탕감해주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다.

켄자스주 토페카의 펠로우십 성경교회(Fellowship Bible Church)는 코로나 19 유행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의료비 부채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을 조성, RIP에 전달했고 이에 총 2천여 명의 의료 채무에 해당하는 470만 달러 규모의 의료비가 탕감됐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펠로우십성경교회 담임인 조 히스메(Joe Hishmeh) 목사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주리 주의 한 교회가가 기금 조성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들은 후 우리교회도 RIP와 협력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비교적 적은 기금으로 이렇게 많은 (의료)빚을 감당할 수 있는 사실이 흥미로웠고 그래서 우리는 RIP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히스메 목사는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웃들을 돕고 싶었을 뿐”이라면서 “우리의 기금을 통해 켈자스주와 네브라스카 남부 일부 지역의 사람들의 빚을 감당할 수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펠로우십성경교회의 이번 의료채무 탕감 노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폐쇄 조치로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크리스천포스트는 강조했다.

강연숙 기자

펠로우십성경교회 또한 미국의 대다수 교회들과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해서 드리고 있다. 히스메 목사는 성도들의 근황에 대한 질문에 “위기 속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으며, 교회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현금의 약 80%는 온라인을 통해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회가 재정 위기 가운데도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는 “위기 동안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성도들에게 전달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줄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RIP은 2014년에 설립된 단체로 2016년 코미디언 존 올리버(John Oliver)가 HBO의 방송프로그램인 ‘라스트 위크 투나잇(Last Week Tonight)’에 긍정적으로 소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종종 교회와 협력해 지역 주민들의 의료 부채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빚진 사람들을 돕고 있으며, 부채 탕감으로 인한 세금 등의 추가 비용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RIP을 통해서 실제 비용보다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의료 부채를 탕감하는 사례들이 많아 교회들이 지역 주민들을 돕는 구제활동의 일환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2018년 4월 부활절에는 텍사스 캐롤튼 연합교회가 RIP에 10만 달러를 기부해, 총 4000 가정의 채무 1,050만 달러가 변제된 것을 비롯, 2019년 3월 매릴랜드 아나폴리스 교회의 기금으로 지역 의료부채 2백만 불이 탕감되는 등 교회들의 RIP을 통한 지역 주민 돕기가 확산되고 있다.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김우준 담임목사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김철민 장로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민승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대(한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지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이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령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오병익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음 행위로 함께 살아가는 새생명체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cfc.com

이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령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왕상윤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회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안창훈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이신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안창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안창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am
2부예배(EM) 주일 9:00am
3부예배(EM) 주일 11:00am
교우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목요제네예배 : 오후 7시
새벽기도 : 오전 6:00(화-금)
셀모임 :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안상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김일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5:30(월-금)
오전 6:00(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이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30(화-금)

www.dagamsachurch.org

안창훈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안창훈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안성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예배 9:15, 오전 11:30
일말미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30,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

1부 예배 : 오전 9:30
2부 예배 : 오전 11:30
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학교/중고등부 : 오전 11:30

청년부 : 오후 2:00
Hispanic Service : 오전 9:30
영문 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회 : 오전 5:30 (월-금)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한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3
T. (714)749-7770 www.saemool.church

정기정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한미어 오전 11:30
KM대학원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FAM에 오전 11:30(청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문 기도회 : 오후 8:00
정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엘바인 침례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엘바인 침례교회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일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92886
T. (714)646-9259

신원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박훈 담임목사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기독교일보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년 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참,(진리의길) 앎,(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개강일자: 4월 2일

*COVID-19으로인하여 개강일자가 연기되었습니다

신학대학교	신학과(B.A) 126학점
신학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M.Div 교역학 석사과정 96학점 D.Min 목회학 박사과정 (NYTS)

본교 지원시 특전

- 1)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2020 LA, California
**목회자 및 사모
복음과 성령 컨퍼런스**
Holy Spirit Conference
2020년 3월 9일-10일(월,화)
9일(월)저녁 7pm
10일(화)오전 10am-4pm
장소: 나눔과섬김교회
276 S. Rampart Bl. Los Angeles

**강력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흐르는
성령의 기름부으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회장: 이명희목사)**

회장: 이명희목사
수석부회장: 박정희목사
부회장: 조은혜목사, 윤에스터목사, 송정순목사, 김사라목사, 노정애목사, 서사라목사, 박예경목사, 조미나목사
총무: 조현숙목사

강사: 이상목 목사
목회자성령컨퍼런스 주강사
(한국, 미국, 캐나다, 남아, 동남아 등)
목회자능력기도회 주강사
목회자 및 사모 영과영성, 주강사
펜실베이니아 Erie 장로교회 담임
KAPC소속 (남부노회 부노회장)

주관: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후원: 개혁장로회한미연합총회
문의 562)896-3212 (에스더유전도사)
562)201-4184 (이명희목사)
714)222-1794 (박정희목사)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CNA | RN 시험준비
영어반 학생모집**

CNA, RN, 채혈사 임시를 위한 영어 강의를 개설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36년간 영어교사를 하신 헨리김 선생님이 지도합니다.

CNA, RN 준비반
월, 화, 수 PM 2:00-4:00

채혈사 준비반
월, 화, 수 PM 4:30-6:30

헨리김 선생

상담문의전화 818-624-9106
213-272-6031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2020년 봄학기 입학생 및 편입생 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 에서 입학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p>학사과정 (B.Th/B.A) 126학점</p>	<p>석사과정 (M.Div/M.A) 96학점</p>	<p>박사과정 (D.Min/Ph.D) 48학점</p>	<p>3월16일 개강</p> <p>등록상담전화 310-678-6836 213-249-6924</p>
---	---	--	--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 TEL: 310-678-6836

잔인한 봄을 회복 위한 안식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가택 격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하면서 글렌데일시와 베버리힐스시는 이를 조례안으로 택하고, 워싱턴주에 벌금 1,000달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는 2,200만의 실직자를 위한 전문학적인 재정지원을 넘어서, 다시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침을 추진 중입니다. 대통령은 “미국의 재개”(Opening Up America Again)라는 3단계의 권고안을 가지고 확진자 발생의 추이가 감소될 때에 맞추어 학교, 식당, 극장, 교회당 등의 모임과 개인의 사회활동의 재개를 제시했습니다. 활동 재개는 각 주지사의 결정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전염병의 어둠이 가장 깊은 격리의 4월, 잔인한 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병마의 공격으로 마음의 봄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어두움은 견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에, 사랑을 위해 사지로 달려가는 의료진이 있기에, 재난 용품을 생산하고 마스크를 만드는 제조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렌트비를 깎아주는 건물주와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정치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마를 저지하기 위한 격리의 봄이 반드시 지나간다면, 지금 살



민 중 기 목사
cheoncheon교교회

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차단되어지고, 휴식의 기간이 확보된 특별한 시기를 미래의 소망을 위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모세오경에는 안식일, 안식월, 안식년과 회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7일 중에 하루와 거룩한 달력의 7번째 달은 고정되어진 안식의 기간이었습니다. 7년째가 되는 안식년에는 밭을 탐감하고, 히브리 노예를 해방시키며, 누구나 노동으로부터 놓임을 얻는 휴경의

해가 되었습니다. 7번의 안식년이 지난 다음 해 곧 50년째가 되는 해는 회년(The Year of Jubilee)으로서 토지개혁을 단행하여 기업을 다시 찾는 해방의 해가 되었습니다. 이 쉬임 곧 안식(安息, the sabbath)을 아브라함 헤셸(Abraham Heschel, 1907-1972)은 “시간의 지성소”(至聖所)라고 하였습니다.

이 비상한 격리의 봄을 허송하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은 이를 새로운 회복을 위한 안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활동반경이 줄어들었다면, 이를 내적인 유익을 증진시키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지중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격리의 시간을 생산적인 안식일로 이용하면 결코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다섯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는 과거의 허물을 청산하기입니다. 둘째는 나의 영혼 관리하기입니다. 이를 위한 영적인 투자, 좋은 투입(in-put)이 필요합니다. 셋째 자가 재충전의 기간을 가지는 일입니다. 언어를 배우든지 독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로 가족 사랑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웃사랑의 기회를 만들기입니다. 이미 여러 성도님들이 마스크 지원, 쌀 지원, 화장지 지원을 하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는 이를 성도를 위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 고통의 시간도 버릴 것이 없는 유익한 시간일 것입니다.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생각(Consider Jesus) # 7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요 14:1-7)

지난주 Door To Door 심방을 통해 잠깐이지만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평안하게 은혜롭게 잘 지내시는 모습을 뵈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집을 방문하기 위해 어떤 길로 가야하는지 결정하면서 길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요14:6)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 위에서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 가신다고 하신 말씀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근심은 물이 요동치다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14:1),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고,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요14:2-3) 이것이 소망이고 위로인데 제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서 근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을 상징하는 성찬과 예수님의 섬김과 겸손을 상징하는 세족식을 했음에도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롯유다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요13:1)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



신 용 환 목사
나성한미교회

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찬과 세족식을 하는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퀴바디시 도미네)라고 물었습니다.(요13:36)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요14:4) 도마가 모른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은 길ियो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요 14:6) 우리도 도마와 베드로처럼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되나요?” 인생에 질문이 있습니다. 길은 목적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진리와 생명은 그 길에서 가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할 진리와 생명이라는 목적으로 가게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나의 길과 진리가 되며 나의 생명이 될 때, 우리는 비로써 모든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맡길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근심 많은 세상속에서 진리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되신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코로나 속의 조나단 에드워즈



정 부 흥 교수
미드웨스턴 객원교수
예일대 에드워즈센터상임연구원

오늘의 세계적 이슈는 COVID-19다. 특정 국가나 지역을 넘어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떤 삶을 열어가게 될지에 대한 많은 생각과 염려 속에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시기에 기독교인들, 특별히 목회자들은 현 상황을 어떤 이해와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까? 초유의 전염병으로 하루에도 몇 천명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목회자들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설교와 목회적 상담을 할 것인지, 그리고 닥쳐 올 코로나 이후의 삶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기가다.

전염병은 전염병이 창궐했던 당대에 다양한 정치적, 종교적, 역사적 흔적을 남겼음을 역사의 기록을 통해 볼 수 있다. 성경에 등장하는 전염병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 지역에 내린 재앙 중 다섯 번째 재앙으로 가축들에 대한 “죽음의 돌림병”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출애굽기 9장 1-7절). 또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이스라엘에게 발병했던 전염병의 기록(민수기 16장)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던 인구 조사를 단행한 다윗으로 인해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으로 희생된 기록(사무엘상 24장)도 성경에 나온다. 이외에도 전염병에 대한 예언과 성

취에 대한 기록 및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재앙의 중심에는 역시 전염병이 있다.

카일 하퍼라는 학자는 로마제국은 안토니우스 역병(AD 165-180)을 시작으로 키르프스 역병(AD 249-262), 유스티니아누스 페스트 역병(541-542)의 높은 사망률로 세계 제국의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았던 전염병은 중세 14세기에 유행한 흑사병으로 유럽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구교의 몰락과 신교의 도래라는 변혁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었다. 기록에 보면, 종교개혁시대인 16세기에도 루터와 칼빈, 츠빙글리도 흑사병과의 사투를 벌였다.

조선시대에서도 전염병의 기록은 빈번하게 보인다. 한 예를 보자면, “목민심서” “역서일기” “실록” 등에 기록된 1821년에 창궐한 콜레라가 그 예다. 당시 콜레라의 발발로 수십만 명이 죽었다고 역사는 기록한다. 콜레라가 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믿었던 백성들은 불안과 공포를 잊고자 고양이 부적을 집집마다 붙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콜레라가 창궐하던 이 시기에도 종교적인 격변이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로 귀의한 것과 최재우를 중심으로 동학이 창시되어 전통의 유교 사회에 변화를 불러 일으켰던 것이 대표적이다. 1918년 발생한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적으로 500만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조선총독부 통계연감에 따르면 총 인구 1670만명 중 44%인 742만명이 감염되었고 14만명이 희생되었다. 이로 인해 더욱 흥흥해진 민심이 이듬해 3월 1일 독립운동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전염병의 역사적 기록을 통해 공통적으로 발견

되는 것은 전염병이 인류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역사의 흐름을 바꿀 정도로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시카고대 교수인 윌리엄 하디 맥닐이 1976년에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란 책에서 주장한 소위 ‘전염병 사관’이다. 그는 전염병이 역사적으로 전쟁에서 살육의 도구로 사용된 실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로마가 기독교를 수용하고, 인도에 불교 문화가 일어나고, 중세 구교의 몰락과 함께 신교가 등장하는 등의 종교적 변혁을 촉진했다는 주장을 펼친다.

필자가 연구하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 전염병과 땀과 땀 수 없는 관계를 볼 수 있다. 먼저 1729년, 에드워즈와 그의 여동생 제루샤, 그리고 아버지가 전염병 디프테리아를 앓게 된다. 기적적으로 에드워즈와 아버지는 살아 남았으나 안타깝게도 그 해 말에 제루샤는 이 병으로 사망한다. 가족을 넘어 에드워즈와 전염병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난했다. 현대 신교의 원조라 불리는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1747년에 에드워즈의 사택에서 유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브레이너드가 사후에 남긴 일기를 에드워즈가 편집, 발행하였고 이것이 브레이너드의 유작이자 현대 신교의 고전이 되었다. 1757년 9월에는 에드워즈의 사위이자 프린스턴 대학 학장이었던 아론 버러가 천연두로 사망하였고, 에드워즈 자신도 이듬해인 1758년 1월에 병에 감염되어 두 달 뒤인 3월 22일 사망한다. 에드워즈 사망 2주 후에는 그의 딸 에스터도 사망한다. 이처럼 에드워즈 가문은 전염병으로 인한 극심한 위기를 겪었다. 그만큼 전염병은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에게는 일상에 흔하게 접할 수 있었던 공포였으리라.

에드워즈는 주치의였던 윌리엄

십편을 통해 아내 사라에게 유언을 기록했는데 당시 그는 가족들과 잠시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유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제 잠시 후 내가 너(딸 루시)를 두고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내 아내에게 나의 가장 친근한 사랑을 전하시오.” 에드워즈의 아내 사라는 딸 에스더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검은 구름으로 덮으셨구나...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행하셨다, 그분이 나로 하여금 자신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하셨다.”고 하였고 안타깝게도 딸 에스더의 사망으로 이 편지는 전해지지 못했다. 이처럼 에드워즈 부부는 전염병으로 인해 본인 자신과 가족의 상실을 경험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께서 그(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공통된 신앙의 고백을 남겼다.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생사를 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믿음으로 미래의 굳건한 소망을 바라보는 신앙을 보여주었다.

에드워즈는 전염병에 걸린 아비가일 허친슨이라는 자매의 이야기를 기록에 남긴 적이 있다. 그녀는 전염병에 감염되어 서서히 임종의 순간을 준비하는 중에 도 자신을 방문하는 방문객들 중 아직 회심치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을 안타까워한 나머지, 자신이 당하는 고통조차 기억하지 못했다고 한다. 임종의 순간까지 “고요히 평안을 누리며 주님 만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고백하였고 그녀의 고백을 듣는 이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남겼고 비록 그녀는 죽었지만 그녀의 간증이 전파되어 뉴잉글랜드 대부흥, 대각성의 단초가 되었다고 기록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최근 코로

나로 고통을 겪는 이탈리아에서도 일어났다. 줄리안 우르반이라는 젊은 무신론 의사는 코로나 확진자인 자신의 환자들 중 한 목사의 죽음을 통해 경험한 본인의 간증을 나누었다. 비록 자신도 코로나 환자였지만 다른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성경을 읽어주다가 조용히 숨을 거둔 이 목사의 모습에 감동한 우르반은 부모님의 신앙을 조롱했던 자신의 과거를 뒤늦게 이 목사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들을 돌보았노라고 결단했다.

성경은 전염병 역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고 말한다(신 29:22; 대상21:12; 대하7:13; 시 106:29).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의 귀한 생명이 사그라드는 안타까운 상황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발생하는 공포스런 요즘, 기독교인들은 이 사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요21:19)로 삼고 선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으면 한다. 한다. 모든 만물의 제일 원인이신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뜻을 위해, 그리고 그의 나라를 위해 우리 시대 속에서 그분의 완전하신 뜻과 구원을 성취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바라보아야 한다. 즉 말세에 세상의 야욕과 죄로 물든 성도는 회개(마4:17)와 인내, 그리고 믿음과 지혜(계13장)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시대적 위기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었고 믿음의 선배들은 각자가 당면한 위기를 믿음으로 견디며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극복했다. 코로나라는 시대적 위기 속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믿음의 선배와 그의 가족들이 고백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진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한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영타슈
 주일제전
 2020년
 2020년
 2020년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현장 견학주변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양자 깔창
양자파동 에너지 쿠션 죽초액 발매트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활,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어든다.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 1) 죽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 2) 은 : 항균, 항취 효과
-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영구적으로 나옵니다.

한국교회와 농촌문제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한국 사회에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기독교의 영향력을 극소화시키기 위해 준동하고 있을 때, 교회는 흔들리는 빈민,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 대책에 나섰다.

1920년대 농민은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했고, 한국 교회는 75%가 농촌교회였다. 따라서 농촌의 문제는 곧 교회의 문제였고, 교회의 문제는 바로 농촌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에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운데 하나는 농민들을 위한 시책이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기 시작한 때부터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본 계층이 농민들이었다. 일제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한국의 국토를 잠식하기 위해 1906년 '토지가옥증명규칙'(土地家屋證明規則)을 발표하고 토지와 가옥에 대한 증명서를 발부한다는 명목으로 토지의 소유권자를 조사

하기 시작하였다. 1910년 한·일병탄을 한 후에는 총독부에 '토지조사국'을 설치하고 1912년에는 토지조사령(土地調査令)을 발표하여 본격적으로 토지 수탈에 나섰다. 일제는 동양척식회사(東洋拓植會社)를 만들어 가난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지를 담보로 영농자금을 대출하고는 기일을 어기면 가차 없이 농지를 빼앗아 갔고, 또한 일본의 대재벌들이 의도적으로 농지를 헐값에 사들였다. 또한 철도를 부설한다는 명목으로 농지를 빼앗았으며, 미등기 농지나 삼림을 국유화하여 일본 이주민들에게 헐값에 넘겨주거나 불하해 버렸다. 결국 한국의 곡창이라는 호남 지방의 경우 농지 75%가 일제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

농지를 빼앗긴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여 고율의 소작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빈곤층으로 내몰렸다. 이에 농민들은 농토가 많고 비옥하다는 만주와 북간도로 줄을 이어 이민을 떠났다. 선교사들도 한국에 와서 절대 다수의 인구가 농민인 점을 감안하여 농촌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농촌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때에 농촌문제 전문가인 선교사 러츠(D.N.Luts)가 1920년에 내한하였다. 그는 재래적 농사법에 의존하고 있던 한국의 농민들에게 농작물 개량법, 토지의 개량, 윤작제, 채소와 과일의 갈무리법, 콩과 식물의 재배법 등을 가르쳤고, 특

히 과수의 재배와 언덕배기의 땅을 농지로 개간하는 일 등에 역점을 두고 계몽활동을 벌였다.

그는 또한 단기 지도자 훈련을 위한 농민학교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농민 지도자 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이 지도자 훈련을 장기화, 체계화하기 위해 숭실전문학교에 농과(農科)를 신설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농민 잡지인 「농민생활」을 출판하는 일도 앞장서서 추진하였다. 그의 지도에 따라 여러 지역에서는 현저하게 수확이 늘어났고, 자연히 수익도 높아 농민들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수입도 늘어가는 결과를 가져왔다.

농촌문제를 위해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관은 YMCA였다. 총무 신흥우는 1924년 미국에 가서 국제 YMCA 총무인 모트(J.R.Mott) 박사를 만나 한국 농촌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각지에 20개의 농민지도소(Farmer's Institute)가 개설되어 4,200명이 등록, 수강하였고, 약 4만 명의 농민들이 저녁집회에 참석하는 성과를 올렸다. 농촌 계몽운동은 농민을 상대로 문맹퇴치, 농사개량, 협동정신이 세 가지로 목표로 각지에서 활동하였다.

1929년 조선기독교연합공의회에서는 각 교파가 연합하여 청년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사업협동위원회를 조직하여 농촌사업의 연합전선을 형성하였다. 농

촌사업 및 농사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여 농민을 계몽하고 농사개량법을 보급하여 농산물 수확을 늘리는 데 일조 하였다.

농촌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 교단은 장로교회였다. 감리교회가 YMCA 같은 기구를 통해 농촌문제에 접근하고 있을 때 장로교회는 이런 기구의 참여에는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1928년 총회에 농촌부 설치를 결의하고 본격적으로 농촌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농촌부 총무로는 1928년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국제선교사대회(IMC)에 유일한 장로교 대표로 참석했던 정인과(鄭仁果) 목사가 선출되었다.

총무 정 목사가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농민 잡지인 「농민생활」의 발간이었다. 이 책은 1929년 6월에 창간되어서 매월 5천부가 팔리는 큰 호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책자를 통하여 농민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농촌계몽운동에 광복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 1930년 총회는 전국 교회의 농촌 선교 협력을 위해 10월 셋째 주일을 농촌주일로 결정하고 이날에 농촌을 위한 헌금을 하여 절반은 노회 농촌부에서, 절반은 총회 농촌부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농촌부에서는 농촌전도, 농촌위생, 농촌교육, 농촌조합운동 등을 시행하였다.

총회는 농촌 지도자 훈련에도 눈을 돌려 1931년 숭실전문학교 농

과에 '고등농사학원'을 설치하여 2개월(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과정으로 농촌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서울에 있는 연희전문학교 내에도 조선기독교청년연합회와 공동으로 농촌 지도자 양성소를 설치하여 1932년 11월부터 매년 2회 1개월씩 남, 여를 교육하여 많은 지도자들을 양성하였다. 연희전문 교장 원한경(H.H.Underwood)은 그 학교 안에 농학과 설치를 줄곧 노력해 왔지만 그 실현을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 대신 '농업개발원'(1967년 4월)이라는 기구를 두었다.

1935년 정인과 목사 후임으로 배민수(裴敏洙) 목사가 총무로 선출되었다. 배목사는 농민협동조합 설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일을 추진하였다. 일제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계몽운동과 농사개량운동, 그리고 농민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교회가 이런 일을 통해 농민들에게 항일의를 불어넣는다고 판단하고, 이 운동에 음양으로 방해 공작을 가했다. 따라서 이런 일제의 정치적 억압은 교회가 농촌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없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농촌운동도 저들의 억압으로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일제의 억압에 더 이상 버틸 힘을 갖지 못한 총회는 급기야 농촌부 폐지를 결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교회의 농민운동도 더 이상 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연재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죽신교
박성원 목사

“자네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나? 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믿었던 건가?”

내가 북한에서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말씀을 방금 전 신약성경을 읽고서야 알게 되었다고 하자 그들은 뭐가 그렇게 우스운지 배를 잡고 깔깔거렸다.

나는 누가 들어도 우스울 수밖에 없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을 북한

에서 하고 다녔다. 이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고 인정하고 나니 하나님은 내 생각과 심령을 만지시며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셨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해야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없으면 모두 허황된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을 인정할 수 없을 때 신앙은 나와 같은 정체불명의 악한이 되어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향인 천국에 돌아가는 그날에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복의 근원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네 집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날은 1996년 3월이었다. 당시 나는 북한조선노동당 지방당의 간부였다.

그때 나는 주체 농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죄로 농촌에 쫓겨가 농장의 머슴으로 살고 있었다. 간부의 삶을 살던 내가 농장의 머슴처럼 살게 된 것이 나중에 생각해보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섭리였다.

당시 내가 쫓겨간 농장에는 관리부위원장과 창고장을 비롯해 농업 기자재를 맡은 간부들이 많았다. 그런데 하필 농장관리위원회에서 나더러 도농산국에 가서 우리 농장에 배정된 비료를 받아 오라는 '혁명 과업'을 주었다. 비록 농촌에 쫓겨 왔지만 한때 도시에서 간부 노릇을 한 경력을 감안해 관리위원장이 내게 직접 '혁명 과업'을 명령했고, 나는 관리위원회가 가는 길에 식량으로 먹으라고 준 보리쌀 한 배낭을 트랙터에 싣고 도농산국으로 갔다. 도농총경영위원회에 도착하니 사무실에는 도내 농장에서 봄철 영농자재를 받으러 온 머리캐나 굴리는 선수들이 들끓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비실대다가는 비료는 고사하고 보리쌀 한 배낭 값

도 건지지 못하겠다 싶었다. 그 순간 인민학교 동창 중에 도농총경영위원회 농촌자재공급처의 간부로 지내는 친구가 떠올랐고, 그를 이용해 비료를 가져가야겠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하지만 우정이 역정으로 변하는 북한의 현실에서는 제아무리 친구라도 맨 입에는 일이 섬사될 것 같지 않았다. 방법을 생각하다 한 배낭 둘러메고 온 보리쌀 두어 뒷박을 농태기 술 두 병으로 바꾼 뒤 친구 집까지 달려갔다. 숨이 목까지 차서 친구 집에 도착해 보니 아나네 둘과 남정네, 그리고 친구가 함께 모여 있는데, 무슨 역적 모임을 한 것만냥 나를 보고는 화들짝 놀

라서 잔뜩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런데 친구는 나를 보고도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태연하게 “저 친구는 흑색 중의 흑색이니 긴장할 것 없습니다” 하면서 다시 자기들끼리 속닥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새매의 습격을 피해 덩굴 속에 머리를 처박은 까투리 새끼들처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처박고 입술을 실룩거리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는데 그 모습이 참 가관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머리를 처박고 무슨 주문을 외운들, 주체사상을 외운들,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잠잠하고 지켜보거나 했으면 잠잠다는 칭찬이라도 들으려만 입이 방정이라 끝내 일을 치고 말았다. (계속)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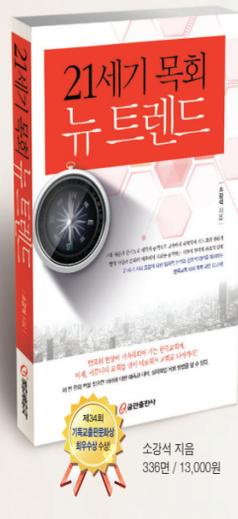
			<p>책의 추천자들: 오대환목사(세종대목사), 주선영목사(장신대 명예교수), 이종희목사(서울대목사), 송정영목사(서울대 명예교수), 권영목사(주원대학교목사), 신성만목사(서울대 명예교수), 유권기목사(서울대학교목사), 김연식목사(KCC 명예목사)</p> <p>* 협의 받은 연재료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p>
<p>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원/영)과 속편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영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게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p> <p>* 책코딩명: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p>			
<p>기드온동죽신교 Gidon Brothers Ministries</p>		<p>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 (425) 775-7477 gbmwsa@gidonbrothers.org www.gidonbrothers.org</p>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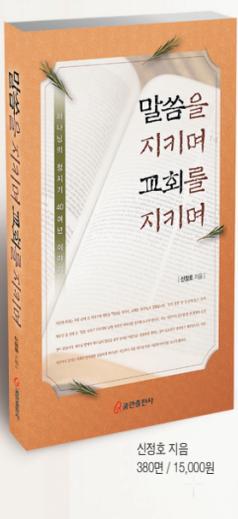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에,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표와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목사



1959년 월간 문예시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세계전교회 담임목사로 사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등을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고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우수상, 미얀마 루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찬양평론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회 일처사, 대한민국 보훈훈장,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간위의 목장정신과 아름다운 순경에서 나오는 그의 절실 활동은 많은 목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교단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철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척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철호 목사



호남신대학교, 정호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연희신학대학원, 서남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미국 유신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전도수회장, 총회 총 노회총무 부장, 회임회 사기, 총회 정책개발연구원, 세계선교부장, 총회사기, 호남신대학교 총동문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동문회장으로 봉사했다. 현재 전직 CBS 운영이사, 호남신학대학교 객원교수, 한신대학교 이사, 한국노인교회 회장, 전주동신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할 때

요한복음 12:35-43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요한복음 12:35-43

35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36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37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희를 믿지 아니하니 38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뉘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39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함이니라 하였음이다 41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42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희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1.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목표

다윗의 신앙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은 손에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높은 자를 내리기도 하시며 빈핍한 자를 부요하게도 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세상 조건보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따른 믿음 여부가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떻게 쓰임 받고 성공할 수 있겠는가를 결정짓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에서 갈릴리에서 헬라 사람 몇이 와서 빌립에게 우리가 예수님 뵈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 목표가 육신이 세상은 날 동안 영광을 얻거나 출세, 권력 또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아들로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는 내세 소망의 궁극적 목표를 위한 믿음이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함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하셨는데, 이것은 인간성과 영성을 겸하여 나타내 보이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입장에서는 그 행패와 고통 속에 죽임 당하시는 일은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면하게 해 달라는 기도를 하셨으나, 즉시 바꾸어 기도하시기를 기꺼이 십자가를 질 것을 의지적으로 밝히시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신 28절의 말씀은 예수님은 죽을 각고를 하고 행패와 수모와 십자가 형통에 못 박히셨습니다. 창과 가시들에 찔리는 육신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각오하시면서 자기의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영광스러운 일임을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곁에 섰던 사람들은 우리가 옳었다고도 하고, 천사가 말하였다고 했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요 12:30-32)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시며 증거 해 보이신 사건은,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깊이,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고, 믿어져서, 회개함으로 구원 얻게 하심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하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게 하신 후,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함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을 “빛”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고 진리의 빛이며, 생명의 빛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의 행적이 너무 악하여 빛보다 어두움을 더 의지하고 숨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빛

로 나오게 되는 것은 빛 가운데서 행한 자기의 떳떳한 일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여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요 12:36) 하시고 저희를 떠나 숨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뉘게 나타났나이까”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39절에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적 기사를 행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다양하게 충분히 보여주시고, 체험시켜 주시며, 들려주셨지만, 그 백성들이 목이 굳고 마음이 완악해서 강박한 연고로 도무지 예수님을 알아 볼 줄도, 믿어 회개하지도 아니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언약의 말씀을 완전히 불신했고, 그 말씀대로 보내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해져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은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9-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

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 아니하도록 마음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보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42-43절에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희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는 말씀은 예수님 공생애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늘소망을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밝히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이유는 인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까 걱정이 되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자 하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담대하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애타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감감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 쓰리고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구원을 얻고,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하늘나라 갈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믿지 아니하면 지옥갈 수밖에 없으니,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서 회개함으로 죄와 죄 값의 형벌, 저주, 지옥을 벗어나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구원을 얻으라.’고 담대히 증거 하는 믿음의 종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APPLY or TRANSFER NOW

GOD FIRST SINCE 1899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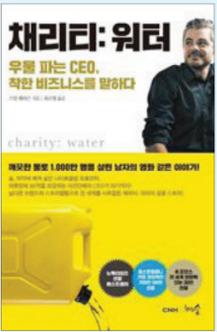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환경을 변화시키는 믿음

“구제불능인 사람은 없어... 변화하기에 너무 늦은 때도 없다”



채리티 워터 스캇 해리슨 | 최소영 역 천그루숲 | 334쪽

술, 마약에 빠져 살던 나이트클럽 프로모터, 하룻밤에 86억을 모금하는 자선단체의 CEO가 되기까지

“물이 타는 목을 적혀준다면, 이 책은 우리의 영혼을 적혀준다. 스캇 해리슨은 클럽 파티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중요한 자선단체를 이끄는 리더로 변모하게 된 놀라운 사연을 들려준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크게 생각하고, 더 깊이 느끼고, 더 많이 나누고픈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에덤 그랜트(기브 앤 테이크, 오리지널스 저자)

의지보다 환경이 중요하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환경을 바꿔야 한다. 1950년 미국은 담배 전성기였다. 미국 인구의 절반이 지독한 흡연자였다. 의학 지식이 부족하기에 의사들은 흡연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학 기술이 발달해 담배의 수많은 문제가 밝혀졌는데도 흡연 인구는 줄지 않았다. 많은 미국인이 의지를 가지고 금연을 결심했지만 1964년 미국의 흡연 인구는 여전히 40%였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흡연 인구 비율은 15%이다. 그 시작은 1970년 닉슨 대통령의 금연 정책부터였다. 새로운 법은 길거리에서 흔히 보던 담배 자판기부터 철거했다.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흡연하는 환경을 방해하니 흡연율이 자연스레 떨어졌다.

행동이나 습관, 주변 환경 변화부터 신앙에 문제 생기면, 마비 일어난다 아프리카에서 목격한 것들, 삶 바꿔

《채리티 워터》의 저자 스캇 해리슨도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행동이나 습관에 갇혀 있다면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문제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채리티 워터는 2006년 설립된 NGO 단체다. ‘채리티(charity, 자선)’라는 뜻이다. 깨끗한 물이 없어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우물을 만들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100만 명이 넘는 후원자들이 있으며 28개국에 44,000개 이상의 물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채리티 워터의 CEO는 스캇 해리슨이다. 그는 조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스캇은 뉴욕에서 10년 동안 나이트클럽 프로모터로 일했다. 그의 일은 고객들을 파티에 초대해 비싼 술을 파는 것이었다.

매일 술과 마약, 여자에 빠져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에게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는 인터넷 검색창에 ‘마비’를 검색했다. 그러다 연관검색어로 나타난 ‘영적 마비’에 대한 설교에 빠져들었다. 설교자는 설교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했다. “당신은 신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사실 스캇의 부모님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 스캇은 열아홉 살에 집을 떠나 신앙과 부모님을 등졌다. 그럼에도 스캇의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다.

스캇은 자신의 상황을 부모님께 알렸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는다. A. W. 토저의 <하나님을 추구하라>였다.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마비가 일어난다. 물질은 결코 우리 가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스캇은 이후 설교를 들으며 잠을 청했다. 마비 증상이 조금씩 완화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다. 여전히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며 똑같은 삶을 살았다.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다.

스캇은 뉴욕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머시습이라는 의료봉사선에 지원한다. 머시습은 거대한 병원선으로 아프리카를 다니며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수술과 치료를 지원해주는 단체였다.

그가 그곳에서 본 장면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았다. 한 번은 커다란 휘발유 통을 들고 물을 길으러 가는 여인들을 보았다.

“그녀들은 혼탁한 초록빛 물이 차 있는 연못으로 갔다. 연못의 물은 수면 위로는 모기와 알들이 들끓었고 수면 아래로도 뭔가 커다란 게 움직이는 게 보였다. 보기만 해도 구역질 나는 물이었다. 그곳을 떠날 때 뒤를 돌아보니 어린 소녀가 더러운 물이 가득 담긴 플라스틱 컵을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다.”

오염된 물은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 질병과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다. 오염된 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쟁과 테러,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다. 스캇은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한 사역을 구상한다. 그리고 시작한 단체가 ‘채리티 워터’다.

채리티 워터는 ‘세 개의 기둥’으로 움직인다. 첫 번째 기둥은 ‘물질의 투명성’이다. 후원자들은 후원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관심이 많다. 뉴스에서는 후원금에 대한 비리 문제가 심심치 않게 보도된다.

그래서 후원금을 100% 물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100% 모델’을 구상했다. 후원금과 운영비를 분리한 것이다. 그 결과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에 겪기도 했다.

2008년 6월 운영비가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스캇은 절망적인 상황에 기도하며 SNS를 통해 도움을 줄 파트너를 물색했다. 그 때 ‘비보’를 창립한 마이클 버치가 100달러를 후원하기도 했다.

두 번째 기둥은 ‘증거’였다. 공적 기부금을 모두 현장으로 보내겠다

는 약속을 말로만 그치지 않고, 기부자들에게 그들의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주었다. 기부자들에게 현장 사진과 GPS 위성 이미지는 물론, 필요하면 동영상까지 증거로 보내주었다.

세 번째 기둥은 ‘브랜드’ 이미지다. 다른 단체들의 경우 대부분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자극하여 기부를 유도했다. 그러나 채리티의 사업 모델은 달랐다. 스캇은 나이키와 애플의 브랜드에서 영감을 얻었다.

나이키는 자사 런닝화를 광고할 때 “넌 상상 이상으로 멀리까지 달릴 수 있어. 다리가 없다고? 상관없어. 그래도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어. 팔이 없다고? 마찬가지로. 그래도 농구를 하고, 권투를 할 수 있어. 너라는 위대함을 믿어!” 그들의 자부심, 긍정적 마인드, 자긍심을 자극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깨끗한 물은 꽤 많은 것을 변화시킨다. 물을 구하려고 하기 위해 보통 6시간을 걷는다. 그것도 아주 오염된 물이다.

만약 물이 생기면 6시간을 벌 수 있다.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학교에 갈 수 있다. 자신의 삶이 생기는 것이다. 나아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변화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과거 문제로부터 떠나는 일 필요

《채리티 워터》의 저자는 이야기한다. “구제불능인 사람은 없다.” 설사 지난날의 잘못으로 인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이 들지라도, 장담컨대 변화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고 말한다.

환경의 변화가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킨다. 스캇 해리슨은 머시습에서 자원 봉사를 통해 오랜 방황의 시간을 정리하게 했다. 마음에 우물

이 생기는 환경의 변화가 아프리카 아이들의 미래를 변화시킨다.

우리 인생도 환경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스캇이 그랬던 것처럼 과거의 문제로부터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되어서 안 된다. 과거의 실수가 미래를 막게 해선 안 된다.

바울은 지울 수 없는 과거를 가지고 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박해했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멈춰 있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간다.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로 변화되었다.

환경 변화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다. 외부적 요인은 내가 관여할 수 없는 경우다. 내부적 요인은 반대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없는 상황은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행동해야 한다. 믿음은 기도와 행동이 결합 될 때 완성된다.

기도하고 행동할 때 환경이 바뀐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 와중에 선행의 손길을 베푸는 분들이 많다. 우리는 그들을 영웅이라고 말한다.

영웅은 한 사람이 아니다. 환경의 변화를 위해 힘쓰는 모든 사람이 영웅이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교회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닌 환경에 끌려다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기독교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다. 환경을 바꿀 때 생명이 살아난다. 인생이 바뀐다. 믿음은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기독교가 환경을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 환경이 바뀔 때 생명이 살아난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아프리카 우물파기 사업. ©월드휴먼브리지 제공



바이러스를 죽이는 마스크가 왔다!

U.S. Patent Serial No.: 88819662

VK마스크 시판

특수 발효소금의 초강력 필터 개발! 마스크는 필터링이 생명!

VK 소금필터의 특징

바하만 청정지역에서 염도가 높은 바닷물을 끌어들이 진흙뻘에 1년간 숙성시킨후 4년간 햇빛과 바람으로 만든 자연산 천일염으로 특수코팅! 중금속 0%! 간수0%! 미세플라스틱0%! 85가지 미네랄 천일염! 특수소금필터는 호흡기를 통해 마스크에 습도가 생기면 소금분자들이 분자 분해를 일으켜 호흡기 방향으로 이동하여 보호해준다. 일반 마스크는 습도가 발생하면 박테리아균이 발생되어 장시간 사용할 수 없지만 VK 마스크의 천일염 특수 패드는 멸균과 동시에 입안에 냄새도 제거해 준다. VKM 소금필터는 특수 코팅되어 3주 이상 사용할 수 있다. (1회 찬물에 1-2분 세척가능) 마스크 필터에는 특수소금이 코팅되어있어 바이러스가 마스크에 접근하면 소금의 결정이 바이러스를 파괴한다. 바이러스가 사멸된 마스크는 균이살지 못하므로 재활용도 가능하다

1개 \$20 1인당 10개 한정 3주 이상 사용가능



특수 천일염 필터 마스크로 자유롭게 안전하게!

판매처

VK 마스크 특수필터는 코셔미네랄 천일염 소금연구소 제공. KoshreMineralSeaSalt.com

Space Eum Cafe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213.386.3896 213.605.2772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세요

100% HANDMADE MADE IN USA

VKMask.com Virus Killer Mask VKMask, Inc.

세계각국 및 지역 대리점 이메일로 접수: info@vkmask.com



숫자를 사랑합니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와 연방 자금의 숫자로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회계사는 아니지만 이런 이유로,
더해지는 숫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년마다, 센서스 인구조사는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데이터가 정확할수록, 우리 지역사회가 연방 자금을 지원받을 기회도 많아집니다. 매년 6,75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연방 자금이 학교, 보건소, 도로 등과 같은 기반 시설에 사용될 것입니다.

응답은 지역사회 발전의 일환이 됩니다.
우리 모두 응답한다면, 지역사회는 더 풍요로워집니다.

2020CENSUS.GOV/ko 에서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이 광고는 미국 인구조사국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미래
지금 시작하십시오 >

United States®
Census
2020